

# 무용전공자의 지도자 신뢰 형성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김민주 단국대학교·노정식\*\* 용인대학교

이 연구는 무용전공자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형성 과정을 탐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으며,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5년 이상의 무용경력이 있으며 지도자에게 무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무용 예술 현장 및 무용교육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무용전공자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심층면담 및 개별 문서자료를 작성하고 연구 설계 3단계 구성에 따라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과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 대부분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지인의 추천이나 부모님의 권유 또는 근거리에서 무용학원에서 무용을 전공하기 시작하며 무용지도자와의 관계 형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둘째, 이렇게 시작된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대화 및 소통을 통하여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지도자와 식사를 하거나 혹은 동반 여가활동을 하는 등 무용실이 아닌 외부활동을 통해 지도자와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셋째, 지도자와 신뢰감이 형성된 후에는 무용 활동을 하며 편안함, 행복함,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신뢰하는 지도자는 부모님, 친구, 멘토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에게 받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본인의 미래 교육관에 현재 지도자의 지도방법 중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점을 자신의 지도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형성 과정에 대해 탐색한 결과,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신뢰형성 과정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신뢰형성 내러티브를 통하여 그들의 신뢰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은 신뢰형성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뢰형성에 대해서도 재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무용전공자, 지도자 신뢰, 내러티브 연구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교육은 지도자와 학습자로 이루어진다. 교육은 지도자의 마인드에 따라 색깔을 입고, 학습자의 열정과 헌신으로 운영이 되며, 지도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발전 혹은 쇠퇴한다. 무용이라는 예술 안에도 조직이 있고 지도자가 존재하며 그 지도자를 둘러싼 학습자가 존재한다. 무용예술 역시 하나의 조직으로서 지도자와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조폐공사 레슬링팀은 최근 전남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양정모 올림픽 제패기념 제42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출전 선수 모두가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 레슬링팀 진형균 감독은 "이번 성과는 선수와 지도자 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땀 흘린 결

\* 본 연구는 2017년도 단국대학교 무용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rohjs@naver.com

과”라고 말하였다(아시아투데이, 2017). 또한, 강수진은 세계에서 가장 예쁜 발을 가진 발레리나로 유명한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최고 예술가들에게 주는 ‘카머탠저린(Kammertänzerin) 작위를 수여한 그녀의 능력은 개인의 노력 이외에도 지도자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녀는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의 마리 카 메소브라소바 교장선생님을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최고의 스승이다”(김혜정, 박혜은, 2014)라고 말했을 만큼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그녀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무용의 가르침을 받는 학습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무용지도자의 신뢰형성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무용 지속 혹은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뢰는 무용교육 현장에서도 지도자와 학생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인이다. 지도자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효율적인 지도를 한다고 할 지라도 학생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거나 학습 내용에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참다운 예술가를 육성한다는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무용교육에서 무용지도자에 대한 신뢰형성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무용 교육현장에서 지도자의 신뢰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무용지도자의 신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도자 신뢰(강지혜, 2010; 양지현, 2014), 무용만족(박선희, 2012), 무용애착도(김정련, 김명주, 윤민숙, 2012), 무용지속(손수미, 2010), 무용활동만족(박진희, 김하진, 2011), 무용활동몰입(구교선, 2012; 최재희, 2013), 무용 역할 학습(김선정, 1997)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몰입, 수행성취, 무용활동만족, 무용 지속 혹은 중단 여부 결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혜정·박혜은(2014)은 지도자 신뢰는 무용수행능력과 수행집중 및 수행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또한, 노성호(2016)는 교사들과 학생 간에 부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부정적 대인표상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유연하게 해석하면서 나아가 부정적 대인표상을 극복하여 새로운 지각의 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의 결과들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시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지도자의 신뢰에 대한 연구에 있어 지도자 신뢰와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밝히는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양적 연구들은 지도자와 학생들 간의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탐색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용전공자와 지도자 간에는 어떠한 신뢰 형성과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무용전공자의 무용입문에서부터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내러티브 방식으로 풀어내어 무용전공자의 지도자 신뢰 형성과정을 밝혀냄으로써 지도자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 신뢰는 무용에 있어서 지도자와 학생 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서로 간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후학들의 무용 지속성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무용전공자의 지도자 신뢰 형성과정을 내러티브연구를 통해 이해하려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현장과 개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를, 무엇으로 표본을 추출할 것 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현장을 표본으로 추출한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Creswell, 2007). 따라서 이 연구는 무용전공자의 지도자 신뢰형성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5년 이상의 무용경력이 있으며 지도자에게 무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같은 대학에서 동일한 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받은 졸업생 8명 학습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전공하게 된 계기,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 계기, 지도자를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의 기분,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지도자의 의미, 지도자에게 받고 있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나이	전공	무용경력
A	여	28	현대무용	17년
B	여	27	한국무용	10년
C	여	24	발레	9년
D	여	27	발레	15년
E	여	24	현대무용	10년
F	여	24	현대무용	6년
G	여	27	한국무용	21년
H	여	27	한국무용	13년

## 2. 자료수집

이 연구는 현재 무용전공자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무용전공자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 형성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이므로 다각적 각도에서의 자료수집이 요구된다. 자료수집은 내러티브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 또한, 이 연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도자에 대한 신뢰형성 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 기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자료수집은 질적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는 심층 면담 방법과 각종 문헌 조사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심층면담의 주목적은 깊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얻고자 함이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면담은 연구자 1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각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개별 면담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개별 면담이 불가능한 연구 참여자는 질문지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 및 면담 기간은 2016년 10월~2017년 4월까지 6개월 기간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면담의 전 과정은 면담 내용의 신뢰성 확보와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정보와 기록 및 자료 등 기타연구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는 모두 수집하였다.

## 3. 자료분석

내러티브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이야기하기와 다시 이야기하기이다. 이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의 텍스트가 연구 텍스트화로 이루어지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참여하에 연구의 신뢰성을 가지게 된다.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현장에서의 텍스트는 분류과정을 거쳐 연구 텍스트화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연구자의 선입견을 주의해야 한다. 선입견에 대한 텍스트 해석은 연구의 신뢰성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윤리성에도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와 반복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의 필수 단계이다. 해석을 거친 현장에서의 텍스트는 연구 텍스트가 되고, 연구의 텍스트는 다시 이야기하기의 재료가 되어 현장 텍스트로 재배치되는 것이다(Jennifer Del Corso, Mark C, Rehfuss, 2011).

따라서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귀납적 범주 분석방법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자료 분석과정에서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받아 연구 자료의 방법적 반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 및 동료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재분석되고 해석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4. 연구의 윤리성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윤리적 문제들도 변하게 되며(소경희 외, 2007), 윤리문제는 매우 강조되어 진다. 내러티브 연구는 한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속에 개인의 정보를 비롯한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 비밀과 익명 처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을 착취해서도 안되며(김동학, 2013), 연구 참여자들도 윤리관을 지니고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연구자와의 협력 관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의 윤리성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이로사, 201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개별 면담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개별 면담이 불가능한 연구 참여자는 질문지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Ⅲ. 무용전공자의 지도자 신뢰 형성과정

#### 1. 연구 참여자A의 면접을 통한 이해와 경험적 의미구성

##### 1) 다이어트를 계기로 무용을 전공하게 된 연구 참여자A

연구 참여자A는 유아기 시절 어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앞에 나가 항상 춤을 추곤 하였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연구 참여자A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리틀엔젤스 무용단의 공연을 본 후 무용학원에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떼를 썼다고 했다. 그 뒤로 연구 참여자A는 무용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발레를 전공으로 무용을 시작했지만 워낙 정적이었던 발레보다 활동적인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6학년이 되던 해에 무용을 그만두고 재즈댄스를 2년 정도 배웠다고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무용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청소년기 내내 무용하던 시절을 그리워했지만 살이 너무 찌서 다시 시작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무용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터라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현대무용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2017.04.25)

##### 2) 특별한 날 파티를 해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 연구 참여자A

연구 참여자A는 지도자와 신뢰감 형성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했다. 주중이 아닌 주말에도 지도자와 항상 같이 있었고, 방학이나 휴가철이면 함께 놀러 가기도 했으며 대학생 언니들과 엠터를 갈 때도 지도자가 항상 엄마처럼 연구 참여자A를 챙겨주셨다고 했다. 또 가끔 지도자의 집에 놀러 가서 자는 일도 있었고,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에는 지도자에게 보여드리기도 했다고 했다.

“특별한 날에는 파티도 항상 열어주셨습니다. 힘든 일이나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선생님이 같이 옥해주시고 이랬던 기억도 나고 학교 축제 때도 선생님들이 같이 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입시가 끝날 무렵에는 데이트하듯 밖에서 만나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녔고요 수능 때는 무용실에서 공부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2017.04.25.)

### 3) 지도자를 통해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알게 된 연구 참여자A

연구 참여자A가 어릴 적 만났던 지도자들 대부분은 하루 한 시간 반 정해진 레슨시간 이상의 지도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의 지도자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연구 참여자A를 평일, 주말 빠짐없이 짧게는 4시간 길게는 12시간 이상 레슨을 해 주셨다고 했다.

“학교를 마치고 5시쯤 학원에 가서 작품을 하고 나면 12시를 훌쩍 넘겼고, 너털너털해진 몸을 끌고 집에 가서 잠들기를 한 달쯤 반복하자 몸에 변화, 움직임, 마인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 뒤로 나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2017.04.25)

### 4) 지도자를 제2의 부모님으로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A

연구 참여자A는 지도자를 은인이라고 해도 부족하다고 했다. 또 스승 이상으로 친구 같은 존재이며 사춘기 시절 다른 지도자에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 잊게 해준 사람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시절 처음 만났던 지도자는 연구 참여자A에게 짜증을 많이 내셨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A가 아직 어렸을 적이라 그랬는지 연구 참여자A의 어머니는 ‘너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힘들어 하셔’라고 늘 말씀 하셨다고 했다. 그 뒤 두 번째로 만났던 지도자는 연구 참여자A가 본인에게 개인레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구 참여자A를 하대를 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났던 지도자는 학원 원장님이셨는데 연구 참여자A를 엄청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하지만 원장선생님이 연구 참여자A를 예뻐했던 이유는 연구 참여자A의 가정 형편이 좋아 작품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유에서 였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A는 앞서 말한 지도자들과 많이 힘들었던 이유로 언제나 무용을 대충대충 했다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난 지도자는 연구 참여자A에게 앞서 말한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늘 부모님의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연구 참여자A를 대했다고 했다. 레슨뿐만이 아닌 예의가 전혀 없던 연구 참여자 A에게 스승을 공경하는 법, 웃어른께 예의 있게 대하는 법, 선후배에게 지켜야 하는 부분 등 많은 것들 또한 가르쳐 주어 1년 만에 많은 것을 변화시켜 주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A는 마지막에 만난 지도자를 그 때 당시 대수롭지 않게 느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지도자가 연구 참여자A에게 엄청났던 분인 것 같다고 하면서 연구 참여자A를 무용전공생답게 만들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준 분이라고 했다.

“저의 은인이라고 해도 부족하신 분입니다. 또 스승 이상으로 가족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고 엄했던 분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2의 부모님이라고 할 만큼 감사한 분입니다. 특별히 단점을 꼽자면 저에게 좀 함부로 대하시기도 했고, 심한 욕도 많이 하셨는데 장점이 크고 워낙 사랑으로 감싸주신 분이라 단점이라고 생각해보는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2017.04.25)

### 5) 지도자에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연구 참여자A

연구 참여자A는 18살에 마지막의 지도자를 만나 딱 1년간 레슨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

는 연구 참여자A는 마지막 지도자를 만나 10년간 무용뿐만 아닌 정신적인 부분에서 지도자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만, 현재는 본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18살에 만나 딱 1년 레슨을 받았지만 10년 정도 지난 지금은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자아가 확립되고 제 주장이 강해지게 되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2017.04.25)

## 2. 연구 참여자B의 면접을 통한 이해와 경험적 의미구성

### 1) 운 좋게 예술 고등학교에 들어가 무용을 전공하게 된 연구 참여자B

연구 참여자B는 무용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고 했다. 취미생활로 발리댄스와 재즈댄스를 배우고 있었지만 그 당시 발리댄스의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아서 발리댄스나 재즈댄스보단 차라리 제대로 학원을 다니며 순수무용을 하도록 부모님께서 무용전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다. 그 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부터 무용 학원을 다니게 되었으나 금전적으로 연구 참여자B에게 장난을 하는 학원이 많았다고 했고, 그 당시 개인 레슨을 받지 않으면 무용을 배울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했다.

“운이 좋게 부모님의 지인 소개로 예술 고등학교로 2학년 여름방학에 전학을 가게 되면서 제대로 무용을 배우게 되었다.”(2017.04.26)

### 2) 학생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아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 연구 참여자B

연구 참여자B의 지도자는 항상 학생들을 “굽지 않은 복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본인이 완벽하지 않아도 변화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해 주셨으며 그런 부분에서 스승이 본인에게 큰 믿음을 주었다고 했다.

더불어 직접 현장에서 무용수로 뛰고 있는 모습과 과거에 활동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며 지도자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따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스승이 학생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레슨시간 초과가 되어도 마음으로 봐주는 스승이셨다. 또한, 스승이 실력으로 믿음을 줬고 그만큼 나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신뢰감 형성이 잘 되는 스승과 제자였던 것 같다.” (2017.04.26)

### 3) 지도자를 통해 사생활을 털어 놓은 연구 참여자B

연구 참여자B는 지도자를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나의 모든 점에 대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B는 지도자가 먼저 학생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학생이 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엇인가가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목적이 아닌, 인정을 받고 싶다고 생각 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스승과 제자로서의 지킬 선을 지켜가며 존중 그리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선생님께 열어 놔던 것 같다.”(2017.04.26)

### 4) 지도자를 롤모델로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B

연구 참여자B는 여러 명의 지도자를 만나면서 나의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는 것 같다고 했다. 첫 번

째로 만났던 지도자는 한 학원의 원장선생님이셨다고 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지만 연구 참여자B를 뚱뚱하고 어깨가 올라갔다며 손가락질하고 질타하며 매일 때렸던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 두 번째로 만난 지도자는 연구 참여자B의 눈에 깽쟁이처럼 보였다고 했다. 두 번째 만난 지도자는 연구 참여자B가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정이 많으신 분이어서 연구 참여자B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항상 함께 울고 웃고 아파해 주셨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B는 두 번째 만난 지도자를 인생에 있어 잊지 못할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하며, 성실함과 시간개념을 선사해 주신 분이라고 했다. 두 번째 지도자에게 기술적으로 화려한 테크닉을 배우진 않았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과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B는 두 번째 지도자를 통해 하루가 길며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고 했다. 또한 집에는 진짜 나의 부모님이 있듯이 무용을 할 때 그 순간 무용실에서 그리고 무용에선 두 번째 지도자가 연구 참여자B에게 엄마 같은 존재이며 롤모델 이라고 했다.

“학생에게 맞는 동작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누구나 무용수가 될 순 없다. 누군가는 무용과를 졸업해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이다. 그 길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주고, 그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주는 것 또한 진짜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지도자와 학생 간에 두터운 믿음이 생기고, 지도자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학생들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용을 전공하는 나로서는 지도자란 교과서 혹은 롤모델이 아닌가 싶다.”(2017.04.26)

#### 5) 지도자를 통해 예술가의 길을 간접체험 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B

연구 참여자 B는 처음 예고에 진학해서 무용을 배우게 된 지도자에게 성실함과 정성을 배운 것 같다고 했다. 이전의 지도자와는 다르게 새벽에 레슨을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셨다고 했다. 이러한 지도자의 성실함과 정성은 그 어떠한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나의 전부를 다져준 부분이라고도 했다. 또한, 앞으로 이 부분은 향후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선생님에게는 예술가로서 갖춰야 할 기질을 배우고 있다. 전통적인 춤사위와 디딤들을 배워가며 전문적인 부분을 배운다. 그리고 가장 큰 배울 점은 무용수로서의 자세(옷핀통정리, 개인사물정리) 등 디테일한 것을 배운다. 또한, 교수님 밑에선 예술가의 길로 끊임없는 발전과 노력을 간접체험하고 있으며 예술가의 양면성과 지도법을 배우고 있다.” (2017.04.26)

### 3. 연구 참여자C의 면접을 통한 이해와 경험적 의미구성

#### 1) 부모님의 제안으로 무용을 전공하게 된 연구 참여자C

연구 참여자C는 어렸을 때부터 방송댄스 추는 것을 좋아했으나 부모님께서 방송댄스로는 대학진학은 물론 직업을 가질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셨다고 했다. 그 후 연구 참여자C는 춤과는 다른 분야인 공부와 첼로 등 여러 가지를 전공으로 해보았지만 무용만큼 흥미가 없었다고 했다.

“중학교 3학년때 고민을 많이 하고 고등학교는 어디로 갈까 부모님과 많이 상의했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 춤추는 것을 좋아했으니 무용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부모님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017.05.10)

## 2) 본인의 진가를 알아봐주어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 연구 참여자C

연구 참여자C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좋아했다. 연구 참여자C는 처음엔 학교에서 무용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무용교육은 연구 참여자C와 정말 맞지 않았다고 말하며 힘든 3년을 보냈었다고 했다. 학교에서의 무용교육은 부족한 무용 실력을 가지고 있던 연구 참여자C에게 믿음이 없었는지 지도자는 매번 심한 말을 하셨다고 했다. 그러던 중 학원에 다니며 무용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학교 무용 교육과는 다른 학원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했다. 학원에서 만나게 된 지도자와 여름이 되면 같이 놀러가기도 하고 특별한 날엔 파티도 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C는 혼나면 더더욱 무용을 하기 싫어했으며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고, 무용을 그만둘까도 고민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도자가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그 점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무용을 하는 나로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학교 입학했을 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나의 장점이 있는데 내가 부족한 아이라는 사실이 박혀있는지 믿음이 없으며 심한 말을 하신다. 나는 다른 사람 눈에는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겐 부족할 수 있는데, 왜 자신의 눈이 맞다며 나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진가를 알아봐 주는 선생님에게 더 신뢰가 가는 것 같다.” (2017.05.10)

## 3) 지도자를 통해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게 된 연구 참여자C

연구 참여자C는 지도자를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에 대해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도자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 주며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서서히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했다. 학원에 가면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했고 학원을 나만의 쉼터, 그리고 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그 공간 안에서는 기분이 항상 좋았다고 했다.

“그냥 학원 가서 선생님을 보면 맘이 편했고 물론 선생님 자체가 학생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시긴 하지만 냉정할 때는 냉정하신 분이려 나도 가끔 당황스럽거나 혼란스러울 때는 있었으나, 나의 기분은 항상 우울하거나 다운된 적은 없었고 오히려 선생님 앞에서는 항상 밝게 보이고 싶고 믿음을 주고 싶었고 그럼으로써 그냥 일상생활처럼 스며든 것 같다.” (2017.05.10)

## 4) 지도자를 정신적 지주 라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C

연구 참여자C는 본인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이전의 지도자처럼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니가 열심히 하면 뭐든 잘 될거야”, “니가 하는 만큼 성장할거야”라는 신사적인 선생님의 마인드와 잘 맞았다고 했다. 이런 지도자의 신사적인 마인드는 연구 참여자C를 꿈수 부리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C는 채찍질보단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더 나아가는 스타일이라 지도자와 코드가 잘 맞았다고 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도자 덕분에 무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처음에 다녔던 큰 학원에 계셨던 강사예요. 제가 예고에 진학하면서 무용을 더 깊게 배우고 싶어졌던 시기에 학원에서 나가셔서 따로 학원을 차리셨다. 나는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었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그 학원으로 바로 등록했다. 그런 사소한 인연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선생님과의 인연도 9년째인데 나의 정신적 지주이며 존경하는 사람들 중 한 분이다.” (2017.05.10)



### 5) 지도자에게 춤이 아닌 인성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연구 참여자C

연구 참여자C는 나에게 지도자란 그냥 스승과 제가 그 이상이 아닌 나의 정신적 지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도자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으며 나의 인생의 멘토로 1등이신 분이라고 했다. 지도자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구 참여자C에게 유독 각별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연구 참여자C는 그냥 지도자가 좋았고 닮고 싶었다고 했다. 학원에서 특별한 일이나 추억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학원 안에서 말로 표현은 못 하지만 서로에게 아주 강한 끈끈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C는 지도자의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고 단 한 번도 대들거나 실망을 안겨드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냥 나에게서는 춤만 알려준 선생님이 아니라 인성과 그 외의 모든 나의 부족한 면을 알려주시고 진심으로 내가 잘되었으면 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나도 그냥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있으면 스승의날인데 항상 1년에 1번씩 스승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있어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다.” (2017.05.10)

## 4. 연구 참여자D의 면접을 통한 이해와 경험적 의미구성

### 1) 집 앞에 무용학원이 생겨 무용을 전공하게 된 연구 참여자D

연구 참여자D는 처음 무용을 시작할 때 취미로 학원을 잠깐 다니다가 그만 두었다고 했다. 그 이후 다시 무용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라 무용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무용에 점점 재미를 붙이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 꾸준히 무용을 배워 예고에 진학했다고 했다.

“어렸을 때 취미로 무용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무용이 하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 우연히 집 앞에 무용학원이 생겨서 무용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2017.04.30)

### 2) 확실한 지적과 설명이 있어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 연구 참여자D

연구 참여자D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말했다. 지도자의 확실한 지적에 있어서 제자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며, 지도자를 믿고 춤을 추었을 때 본인의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D의 지도자는 콩쿨 시즌엔 작품 위주의 반복적인 지도방식이었다면, 콩쿨 시즌이 아닐 때는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지도해 주셨다고 했다. 이런 지도 방식이 연구 참여자D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며, 지도자를 통해 본인의 춤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을 때 지도자와 학생 사이에 믿음의 형성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내가 동작을 함에 있어 힘든 부분 이라던지, 어려운 부분을 잘 캐치 해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 더 지적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어 내가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점 늘어가는 것이 느껴지면서 선생님을 믿고 배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제자들을 대하실 때 정말 아껴주시고, 친근하게 대해 주심에 있어서 신뢰감을 많이 느낀 것 같다.” (2017.04.30)

### 3) 지도자를 통해 기대감을 가지게 된 연구 참여자D

연구 참여자D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에게 배움으로써 나의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도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았으며 지도자에게 많은 기대감이 생겼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D는 지도자에게 항상 질문을 하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서슴없이 질문을 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D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을 지도자에게 얻어가며 그 부분을 고쳐 춤을 출 수 있었다고 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몸은 어떻게 써야 예뻐 보이고, 어떻게 써야 편하게 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 주었고, 각각의 동작들은 어떻게 어디를 써야 정확하게 동작을 할 수 있으며, 쉽게 동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만의 노하우를 알려 주었다. 앞으로 더 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있었다.” (2017.04.30)

#### 4) 지도자를 멘토라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D

연구 참여자D는 지도자가 춤에 있어 또 앞으로 진로에 있어 고민은 무엇인지 물어봐 주고, 상담해주고, 지도자가 겪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해 주고 제자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춤을 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D는 지도자와 학생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대화라고 했으며, 지도자는 늘 학생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캐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혹 보면 선생님들 중에 제자들이 춤을 출 때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를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선생님을 본 적이 있다. 제자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디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이 안되는지를 선생님께서 잘 캐치 하여 지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의 춤의 발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선배님이기 때문에 멘토로 생각한다.” (2017.04.30)

#### 5) 지도자에게 지도방향에 대한 영향을 받은 연구 참여자D

연구 참여자D는 지도자가 작품에 있어서 그 작품의 느낌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연구 참여자D가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춤을 출 수 있게 해주셨다고 했다. 또 연구 참여자D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다고 했다.

“지도자에게 많은 배움으로써 성장하였다. 칭찬도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감도 높아져서 점점 더 내 춤에 집중하게 되었고, 실력도 차근차근 향상되었던 것 같다.”

### 5. 연구 참여자E의 면접을 통한 이해와 경험적 의미구성

#### 1) 유연성이 좋아 무용을 전공하게 된 연구 참여자E

연구 참여자E는 무용경력이 9년이라고 했다. 발레 수업을 하면서 공연도 많이 하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시간을 좋아했다고 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무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연구 참여자E의 지나온 시간 속에 제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발레를 다시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면서 무용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어렸을 때 유연성이 좋아서 엄마랑 아빠가 집 앞 복지관 센터에서 발레를 시켜줬어요. 발레를 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너무 좋게 남아있어서 중학교때 엄마가 뭘 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발레를 하고 싶다 계속 춤을 추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용 학원에 엄마가 데리고 갔어요.” (2016.10.31)

#### 2) 대화를 통해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 연구 참여자E

연구 참여자E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순서를 잘 외우지 못하는 편이라고 하며 본인을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라고 했다. 순서를 외우는 부분이 부족한 연구 참여자E에게 지도자는 순서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 수학

공식처럼 외워보라는 방법을 추천을 하셨다고 했다. 또 학생들이 물어보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먼저 따뜻하게 항상 얘기해주시고 학생들의 성향을 일일이 파악해 주셨다고 했으며, 학생들의 공부까지 지도자가 직접 책임져 주셨다고 했다. 영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영어단어를 몇 개씩 외워서 시험을 보곤 했고, 지도자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학생들과의 끈을 놓지 않고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을 챙겨주셨다고 했다.

“대화가 제일 컸던 것 같고 선생님이 되게 이미지가 차가운 이미지인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많았고 한 사람 한 사람 파악을 할 때 모를 것 같았는데 이 친구한테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 친구한테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이런 걸 알아서 선생님이 파악해주시니까..그리고 가끔은 선생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곤 했어요. 최근에도 선생님 집에 가서 선생님 아이들과 놀곤 했어요. 대화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이 선생님에게 믿음이 가고 신뢰감이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2016.10.31)

### 3) 지도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된 연구 참여자E

연구 참여자E의 지도자는 앞에서는 칭찬을 하지 않고 늘 뒤에서 다른 지도자들에게 연구 참여자E의 칭찬을 했다고 했다. 무용 실력은 좋았지만 다른 전공생들에 비해 키도 작고 통통해 신체 조건이 좋지 않았던 연구 참여자E는 지도자 앞에서 무용 실력이 아닌 신체 조건에 대하여 늘 지적받고 혼나기만 했다고 했다. 다른 학생에 비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었던 연구 참여자E는 입시를 준비하며 다이어트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다른 지도자에게 연구 참여자E의 지도자가 연구 참여자E의 칭찬을 자주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난 후 연구 참여자E는 입시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자신을 응원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선생님은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칭찬을 한 적이 없었어요. 살이 안빠졌네 어젠 뭐 먹었니 라며 혼나기만 했어요. 근데 우연히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칭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력은 진짜 좋은데 살을 못빼서 그렇다구.. 그 얘기를 들은 뒤론 뭔가 마음의 안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더 끌어올리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2016.10.31)

### 4) 지도자를 친구이자 멘토 라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E

연구 참여자E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하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는 지도자가 좋다고 생각했다. 한창 예고에 다니고 있을 때 친구들이 시샘이 크고 경쟁이 너무 심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하지만 지도자가 연구 참여자E에게 본인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용기를 심어 주셨다고 했다. 예를 들면 “넌 잘 할 수 있어”, “너만 열심히 하면 뭐든 잘 될 거야”라고 말해 주시며 연구 참여자E의 편에 서서 늘 응원을 해 주셨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E는 지도자는 본인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되려 생각해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내가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는 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친하면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도자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하고 학생도 지도자에 대해 예의를 지켜야 하고. 또 서로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를 진짜 친구는 아니지만 그만큼 가까운 저를 제일 잘 아는 친구처럼 때로는 멘토로 생각해요.” (2016.10.31)

### 5) 지도자에게 본인의 미래 교육관에 대해 영향을 받은 연구 참여자E

연구 참여자E는 향후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겠다고 많이 생각했다고 했다. 앞으로 연구 참여자E의

지도에 있어 학생과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학생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도자가 학생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했다.

“나의 지도에 있어서 좀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학생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정해진 시간 보다는 좀 더 많이 알려줘야겠다는 점과 레슨을 하면서 학생들은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공부적인 부분도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선생님이다.” (2016.10.31)

## 6. 연구 참여자F의 면접을 통한 이해와 경험적 의미구성

### 1) 지인의 추천으로 무용을 전공하게 된 연구 참여자F

연구 참여자F는 무용경력이 4-5년 정도 됐다고 했고, 무용을 시작하기 전에 무용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처음엔 방송댄스로 예고에 진학하고 싶어 했으며 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엔 지인의 소개로 개인레슨을 하다가 예고에 진학한 후 개인레슨은 중단했다고 했다.

“학원은 오래 다닌 건 아니고 춤추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다가 3개월 정도 다니고 저희 이모께서 지인분께 말씀을 하셔서..그분이 무용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셔서 무용을 하게 됐어요.” (2016.10.27)

### 2) 엄마처럼 친근감이 있어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 연구 참여자F

연구 참여자F는 지도자와 여행은 아니지만 레슨이 끝나면 같이 밥을 먹거나 놀러 가기도 하고, 지도자의 집에 놀러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와 금방 친해지지 않았나 라는 말을 했고, 하루하루 컨디션에 따라서 동작이 잘 수행되지 않아 울었던 적도 있고 속상했었던 날엔 저녁에 선생님께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해 주셨다고 했다. 또 연구 참여자F의 지도자는 늘 직접 몸소 시범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F는 지도자와 학생이 잘 맞으려면 말로만 지도하는 방법보단 직접 시범을 보여 몸을 부딪치는 설명이 지도자와 학생이 신뢰감 형성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했다.

“제가 제일 어린 제자여서 친근감 있게 엄마처럼 대해주셨어요. 서로 몸을 부딪치면서 설명해주고 이러니까 저는 밥 먹고 이런 것보다는 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친밀감이나 신뢰감을 더 형성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나를 많이 생각해주시는구나 저도 더 다가가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랬었죠.” (2016.10.27)

### 3) 지도자를 통해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가까워진 연구 참여자F

연구 참여자F는 지도자와 함께 밥 먹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지도자와 연구 참여자F 사이에 진솔한 이야기가 주고받아지게 되었다고 했다. 학생은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F는 이런 자리를 통해 서슴없이 지도자에게 고민이나 사소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 같다고 했고, 연구 참여자F에게 제일 좋은 지도자란 무용실에선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밖에선 진솔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선생님을 신뢰하면서 힘든 일이나 어떤 사소한 일들까지도 말할 수 있게 돼서 편해졌고 수업이외에도 다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더욱더 사이가 가까워졌던 거 같아요.” (2016.10.27)

#### 4) 지도자를 친한 선배라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F

연구 참여자F의 지도자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했다. 늘 연구 참여자F에게 자신감을 불여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셨고 연구 참여자F는 자신의 무용 실력에 항상 의심을 하게 되었던 편인데 무용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도 지도자는 항상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해 주셨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자들은 학생을 혼내며 욕을 하시곤 했는데, 연구 참여자F의 지도자는 한 번의 실수는 눈감아 주시곤 했으며 다음 번에 잘 하자라고 하며 레슨 시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 주셨다고 했다.

“거리낌 없이 항상 연락이 가능하고 나의 춤 발전에 있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지도자 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많이 가깝고 친한 선배 같은 느낌이 있어요.” (2016.10.27)

#### 5) 지도자에게 깨달음에 대한 영향을 받은 연구 참여자F

연구 참여자F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지도자가 잘한다 잘한다 말해줄 때 지도자와 100% 신뢰형성이 되는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100%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지도자와 학생 간에 친밀도가 높게 형성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무용실에서는 무용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무용실 밖에선 사회생활이나 지도자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며 편안하게 학생들을 대해 주면 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지도자의 움직임 배우면서 나는 그 움직임이 너무 재밌고 춤을 출 때 몸을 쓰는 느낌이 좋아서 났아가고 싶다는 생각과 계속 춤을 추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지도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매번 느꼈지만 배울 점도 많았고 지도자로 인해 깨달은 점도 많아서 나도 이런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 같아요.” (2016.10.27)

### 7. 연구 참여자G의 면접을 통한 이해와 경험적 의미구성

#### 1) 선생님과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무용을 시작하게 된 연구 참여자G

연구 참여자G는 무용경력이 21년이라고 말하며 처음 무용을 접한 곳은 유치원인데 유치원에서는 진짜 무용이 아닌 그냥 뛰고 노는 식의 무용을 배웠다고 했다.

“6살 때 집 앞에 무용학원이 있어서 엄마의 권유로 무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때 배웠던 것은 사실 무용보다는 그냥 뛰고 놀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주로 외국인 선생님께 발레 수업을 받았고 주변에서 발레를 전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발레가 더 좋았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엄마가 한국무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한국무용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17.04.25)

#### 2) 상담을 통해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 연구 참여자G

연구 참여자G의 지도자는 모든 부분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며 다방면으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셨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G가 아닌 다른 학생의 작품음악에 연구 참여자G의 작품을 하면서 감정을 내보게 하거나, 눈을 가리고 방향감각을 찾으며 작품 해보기, 음악을 20초만 들려주고 움직여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입시 기간 레슨을 진행해 주셨다고 했다.

“수능이 끝나고 공부 안할 때 선생님이 따로 일본어 수업도 해주시고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다니면

서 학교이야기, 입시 상담, 고민 상담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화를 통해 선생님과 저의 신뢰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2017.04.25)

### 3) 지도자를 통해 행복하다고 느낀 연구 참여자G

연구 참여자G의 지도자는 다른 지도자와 다르게 충직한 부분만 레슨 해 주시지 않고 연구 참여자와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G는 지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선생님을 만나서 참 행복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과 춤출 수 있어서 행복한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2017.04.25)

### 4) 지도자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G

연구 참여자G가 처음 만났던 지도자는 기본기에 매우 충실한 분이라고 말하며 처음 지도자와의 레슨 덕분에 지금의 연구 참여자G가 있을 수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처음 만났던 지도자는 연구 참여자G에게 너무 무서웠다고 하며 칭찬보다는 채찍질을 많이 하셨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G에겐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지만 첫 번째 지도자는 화가 나면 정말 무섭고 물건을 던지거나 깨트리기도 했다고 했다. 그 뒤로 예중에 진학하며 두 번째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 지도자는 연구 참여자G에게 이전의 춤 스타일과는 다른 춤을 알려주셔서 적응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또 앞서 첫 번째 지도자와는 다르게 피멍이 들도록 엉덩이와 손바닥을 맞으며 교과목 쪽지시험을 보곤 했다고 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연구 참여자G에게 무용 이론 쪽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 만난 연구 참여자G의 지도자는 앞서 말한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유쾌하고, 침착하고, 작지만 춤집이 좋은 엄마 같은 선생님이라고 했다.

“제겐 엄마와 같은 의미예요. 무용을 하는 동안에는 선생님이 정말 엄마 같았어요. 엄마한테는 말할 수 없는 무용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셨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아직도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2017.04.25)

### 5) 지도자에게 소통에 대한 영향을 받은 연구 참여자G

연구 참여자G는 세 번째로 만난 지도자에 대해 항상 학생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셨다고 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며 대화를 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다. 지도자와 학생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며 지도자는 학생을 믿어야 하고 학생은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G는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본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구 참여자G가 학원에 다닐 당시에 지도자가 학원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개인 연습을 시켜 놓고 연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면 경보음을 울리고 연습을 독촉하곤 했다고 했다. 그 일을 겪은 뒤로 연구 참여자G는 지도자와 학생 간의 소통과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선생님처럼 저 역시 현재 아이들을 지도할 때 기본 춤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걸 중요시하고 있어요. 현재 저에게 지도 받고 있는 아이들은 기본에 충실하려는 제가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기본기부터 탄탄히 잡고 올라가야만 모든 춤에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저를 지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이들과 소통하며 춤추고 싶어요.

무용 이야기는 물론, 아이들의 생각과 고민 등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2017.04.25)

## 8. 연구 참여자H의 면접을 통한 이해와 경험적 의미구성

### 1) 열렬결에 무용을 전공하게 된 연구 참여자H

“유치원 때 잠깐 발레를 1년 정도 배우다가 힘들기도 하고 흥미를 잃어서 그만렸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때 다시 춤이 좋아져서 방송댄스를 따라 하고 놀았는데 그걸 엄마가 지켜보시고서는 집 근처에 있는 무용학원을 알아봐서 열렬결에 무용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무용이 재미 있어서 계속하다 보니 예고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무용이 제 전공이 되었습니다.” (2017.04.26)

### 2) 쉬운 설명과 에너지를 통해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 연구 참여자H

연구 참여자H의 지도자는 콩쿨도 빠짐없이 따라 다니면서 옆에서 직접 챙겨주시고 레슨이 끝난 후엔 밖에서 따로 맛있는 것도 사주시며 연구 참여자에게 정성으로 대해 주셨다고 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H는 그런 지도자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더 열심히 무용을 했고 서로의 에너지가 잘 맞아서 다른 학생과는 다르게 지도자와 금방 친해지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했다.

“선생님은 열정이 넘치시고 정말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스파르타식으로 수업하는 방식이셨고 두 시간 수업을 꼭 채우시고도 모자르면 더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거의 원하는 동작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또 지켜보며 시키는 스타일이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실력은 금방 향상되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춤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고 실력도 더 좋아졌습니다. 더 애정을 가지고 수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17.04.26)

### 3) 지도자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된 연구 참여자H

연구 참여자H는 자신감이 매우 없었다고 하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지도자가 채워줬다고 했다. 지도자는 연구 참여자H에게 많은 시간 레슨을 같이 하진 못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연구 참여자H에게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키워주셨으며, 연구 참여자H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수업을 진행해 주셨다고 했다. 이런 부분에서 지도자와 신뢰가 형성이 잘 된 것 같고 연구 참여자H도 지도자를 더 믿고 따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냥 어떻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이 생겨 수업을 많이 하진 못했지만 저랑 잘 맞았고 그래서 신뢰감 형성 부분에서는 금방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춤을 더 잘 출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해 주셨습니다.” (2017.04.26)

### 4) 지도자를 아이디어 뱅크라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H

연구 참여자H는 첫 번째로 만났던 지도자가 연구 참여자H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어 첫 번째 지도자와의 시간은 없었다고 하며 바로 두 번째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첫 번째 지도자와의 시간은 짧았지만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었고 지도자의 열정과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고 하며 두 번째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디어가 항상 넘치셔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이디어 뱅크라고 해도 표현이 부족한 선생님 이셨어요. 힘들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무용을 많이 접해보게 해 주시고 조금 더 알기 쉽게 춤을 알려주셔서 제 춤 스타일이 더 다양해졌고 실력도 더 좋아졌습니다.” (2017.04.26)

#### 5) 지도자에게 인내심에 대한 영향을 받은 연구 참여자H

연구 참여자H는 지도자와 학생 간의 신뢰형성 문제는 결국 서로 끌고 당기는 힘 즉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도자에 대한 학생의 믿음과 열정은 지도자가 학생을 인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끌고 가다 보면 속도가 느리던 빠르던 언젠간 같은 마음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서로에게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 신뢰가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했다.

“지도자의 열정과 에너지는 모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학생들이 믿고 따르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그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열정과 진심 어린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용 지도자와 학생의 신뢰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얼마만큼의 인내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7.04.26)

##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무용전공자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형성 과정을 탐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으며,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내러티브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이 지도자로 인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변화가 신뢰형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담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신뢰형성 배경을 분석하고, 현재 신뢰형성을 해야 하는 무용 전공자의 삶을 재구성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년 이상 전공한 무용전공자 8명의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심층 면담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성장과정 안에서 지도자와 신뢰 형성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지도자와 어떤 신뢰형성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를 신중하게 파악하였고, 이어 연구 참여자들이 지도자와 맺은 관계는 어떠한지 연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 각자의 삶에 대해 해석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던 대화를 모두 전사 하였으며, 텍스트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해석과 기술은 연구 참여자들이 무용 교육 과정에서 지도자와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여러 신뢰 형성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에 집중되었다. 이로써 내러티브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 대부분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지인의 추천이나 부모님의 권유 또는 근거리에서 있는 무용 학원에서 무용을 전공하기 시작하며 무용지도자와의 관계 형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둘째, 이렇게 시작된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대화 및 소통을 통하여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지도자와 식사를 하거나 혹은 동반 여가활동을 하는 등 무용실이 아닌 외부활동을 통해 지도자와의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와 신뢰감이 형성된 후에는 무용 활동을 하며 편안함, 행복함, 기대감을 가지



게 되었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신뢰하는 지도자는 부모님, 친구, 멘토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지도자에게 받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본인의 미래 교육관에 현재 지도자의 지도방법 중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점을 자신의 지도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 모두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 지도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신뢰감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그렇지 못했을 경우 상호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형성이 학생들의 발전적인 무용 활동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성장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용전공 지도자들은 학생과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지도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지혜(2010) 고등학교 무용전공 지도자의 지도유형과 지도자 신뢰 및 만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구교선(2012) 무용교육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지도자 신뢰 및 무용몰입의 구조적 관계. *대한무용학회*. 71(3), 1-24
- 김동학(2013) 체육대학 교육경험을 통한 체육전문인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진로교육연구*. 22(23), 137-195.
- 김선정(1997)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무용 역할 학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정련, 김명주, 윤민숙(2012) 무용지도자의 교육지원이 지도자신뢰 및 무용에착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2(11), 145-154.
- 김혜정, 박혜은(2014) 무용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좋은 지도자'의 유형과 특성.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노성호(2016) 교사들의 대인표상과 학생지도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선희(2012) 무용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팔로워십 및 지도자 신뢰에 따라 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진희, 김하진(2011) 무용전공대학생의 무용활동만족과 지도자 신뢰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 20(1), 701-713
-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학사*, 서울, 대한민국.
- 손수미(2010) 무용전공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지도자 신뢰와 무용지속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양지현(2014) 예술 고등학교 무용지도자의 지도유형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 및 지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로사(2014)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한 무용전공자의 진로결정.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최재희(2013) 무용수업 참여 중학생이 지각하는 지도자 신뢰감과 무용몰입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30(1), 123-137.
- Creswell, J.(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2nd ed.)*, Sage,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공역(2010). 학지사, 서울, 대한민국.
- Jennifer Del Corso, Mark C. Rehfuess(2011). The role of narrative in career construction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9 pp.334-339.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409010005128>

ABSTRACT

---

**Narrative Research Act to Identify the Trust-building Process of  
Dance Majors with their Leaders***Kim, Min-Ju Dankook Univ. · Rho, Jung-Sik Yongin Univ.*

This study conducted to identify the trust-building process of dance majors with their leaders and applied the Narrative Research Act for in-depth understanding through personal and practical experience. Eight dance majors with more than five years of experience in dance for this experiment selected as participants in the study, who had received dance education from leaders, and who had various experiences in dance, art scene, and education. In-depth interviews with study participants and individual document data prepar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draw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ata according to the three stages of research design. First, most of the study participants liked to dance, began to major in dance in the dance academies around home through recommendations from acquaintances or parents, and began to form relationships with dance leaders. Second, the participants stated that they formed a trust relationship with the leader through communication and dialogue with the leader, primarily through outside activities, not only dance rooms, such as eating or engaging in shared leisure activities. Third, after a trust relationship with the leader was established, study participants thought of the leader as one of their parents, friends and mentors, and came to recognize him/her as one of those who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mselves. Finally, most participants in the study stated that they would apply to their future guidance what they felt were advantages of their leaders' guidance methods. For study to explore the process of building trust with study participants and leaders, it was impossible to know what the process of building trust meant to study participants until we understood their lives. In other words, the Narrative Research Act was able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building trust among study participants. Narrative research has allowed participants to talk about their experiences, and in the process, researchers and research participants to re-recognize the trust-building process, allowing them to think again about the trust-building process that has already formed.

**Key words** :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leader trust, narrative study

---

논문투고일: 2019. 09. 02  
논문심사일: 2019. 10. 08  
심사완료일: 2019. 10. 19